

1주 - 1일차 과제

소용석

➤ ActiveX?

ActiveX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에서 1996년 제작한 객체 지향적 프레임워크이다. 이 기술은 MS 응용프로그램간의 정보와 기능의 공유 및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요소가 내재된 채로 실행되어 해당 기능과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능을 제공하였다. ActiveX SDK내의 ActiveX 컨트롤을 통하여 여러 프로그램에서 재사용될 수 있는 윈도우 머신 기반에서 실행될수 있는 컴포넌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3.0을 처음으로 HTML문서에서도 ActiveX 컨트롤을 지원하였다. HTML문서 내에 ActiveX 컨트롤이 있으면 사용자의 개입 없이(혹은 최소한의 개입만으로) 해당 컨트롤은 설치되어 웹페이지 상의 컴포넌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국내 웹에 ActiveX가 정착되게 된 이유 및 배경

2000년 대 초반, 국내 웹에 ActiveX가 정착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국내 인터넷 속도의 유례없는 발전이고 두번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유일한 경쟁 상대였던 넷스케이프의 몰락이다.

국내 인터넷 속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국내 웹사이트 콘텐츠의 부가기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당시 웹 표준으로는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웹 사이트들은 동영상 재생, 사진 편집, 온라인 결제와 같은 부가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표준인 ActiveX 컨트롤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사용함으로써 웹페이지 내에 윈도우 실행 프로그램을 내재(embed)하여 부가기능들을 구현 할 수 있었다.

ActiveX 컨트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및 윈도우즈OS에서만 실행될 수 있다는 큰 제약이 있었지만 당시에 국내 웹 브라우저 시장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윈도우즈 OS가 독식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자발적인 규제보다는 역으로 더 많은 ActiveX 컨트롤 기반의 플러그인 개발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악순환으로 사용자들은 웹 콘텐츠를 불편없이 이용하기 위해 윈도우즈OS의 PC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ActiveX는 국내 웹에 뿌리깊게 정착을 하게 되었으며 웹 생태계가 ActiveX 없이는 구동이 안될 정도의 병적인 '갈라파고스화' 상태에 이르렀다.

➤ 웹 표준과 웹 접근성과 국내 현 상황

웹 표준이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월드와이드웹(WWW)이 될 수 있도록 WWW 컨소시엄(W3C)에서 제정한 공식 표준 및 기술 규격을 의미한다.

웹 접근성이란,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웹의 정보나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koreahtml5.kr에 따르면 2014년 9월 기준 국내 100대 민간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9%의 웹사이트들이 아직까지 웹 표준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ActiveX 컨트롤을 사용한다. 비표준 플러그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HTML5표준은 현재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웹사이트에서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 조사하며 느낀 점

표준을 따르지 않는 ActiveX 플러그인은 웹 접근성을 저해하는 방해요소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인터넷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그 누구도 웹 표준을 주장하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플러그인의 남용으로 인해 웹 생태계의 불균형은 심각했지만 반대로 이러한 남용은 국민들의 인터넷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고취, 전국적인 IT 인프라 확보, 온라인 게임 산업 발전과 같은 부작용(?)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과거의 이러한 시행착오를 경험삼아 국내 웹 생태계 구성원들은 웹 접근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여 건강한 WWW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